



이스라엘 업데이트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8년 3월 3일

가자(Gaza) 군사 작전 증강

이스라엘이 가자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던 9천명 가량의 자국민 및 모든 군부대를 철수시킨 지가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하마스(HAMAS) 운동이 가자 정부를 접수한 직후의 일이었죠. 그 이후로, 하마스 정부는 테러 활동과 반(反)이스라엘 지하드 운동을 지속하여 이스라엘을 실망시켰습니다.

지난 2월 27일 화요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증대했습니다. 수요일로부터 일요일(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각)까지의 닷새 동안, 가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쏜 미사일은 183발에 달하며, 그 중엔 대다수가 아쉬켈론 시(인구 12만)까지 이른 20발의 그라드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을 맞았습니다. 공격이 계속 되도록 내버려둘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자국민이 집중된 땅에 미사일을 발포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가자 전부를 재(再)점령하기에는 수많은 희생이 뒤따를 것이요, 향후 통제도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로켓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가자에서 견고하면서도 온건한 작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밤, IDF의 기브아티(Givati) 사단은 가자에 진입하였는데, 일단 로켓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스테롤(Sderot)을 마주하고 있는 기발레아(Gibaleah)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다음의 목표물들을 겨냥했습니다. 1) 하마스 본부 및 지도자들 2) 무기 저장고 3) 미사일 발포지 4) 무기 운송 트럭 5) 하마스의 활동적 군부대 전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인구 집중 지역을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포하고, 무기 장비를 팔레스타인 주거 지역 한가운데에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마스 선전 조직은 이스라엘의 잔학함을 비난함과 동시에 자국 민간인들이 연합하여 목표물이 될만한 지역에 “인간 방패”로 일어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기발레아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160대의 미사일을 신고 가던 트럭을 폭파시켰습니다. 최근 전투에서 양측 모두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고, 수천이 폭발로 인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물론 팔레스타인이 훨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100명 당 이스라엘 3명 정도입니다. 가자 민간인들의 상황은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는 무력을 사용하여 테러와 폭발을 중단시키는 것이지만, 가능한 한

함께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합니다.

샤밭(안식일)에 저희 회중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위하여 중보하는 데에 꽤나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공황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투를 직접 경험한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테러를 뛰어넘는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한 이들 가운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고 지원한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곳의 전쟁은 군사적 문제로부터 영적인 문제를 아우르며, 꽤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분별해야 할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1. 아랍(팔레스타인)인 - 이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랑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전도의 노력을 기울이며,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화해에 힘씁니다.

2. 이슬람 - 이것은 무함마드와 그 추종자들의 교리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거짓 가르침임을 믿습니다. 종교로서의 이슬람은 올바른 성경적 교육으로 다뤄야만 합니다.

3. 지하드 - 이것은 이슬람 내의 한 성향으로, 이슬람의 지배라는 목표를 성취키 위해 서구 문명과 이스라엘의 파멸을 촉구합니다. 제 생각에, 이는 악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짐승”과 연관됩니다.

4. 테러 - 이는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무고한 이들을 죽임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테러는 원래 일종의 범죄 행위였으나, 지난 몇 년간 완전히 군사적인 공세로 변모되었습니다. 테러에는 강력하고 결속력 있는 경찰/군사 행동으로 맞서야 합니다.

5. 하마스 - 이것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로서, 현재는 가자 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들을 가자 주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올려놓은 선거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후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선동해왔을 뿐 아니라 가자에 남아있던 복음주의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으며, 저희 회중 출신도 꽤 됩니다. 저희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저녁, 저는 한 목사의 아들이 종아리에 총을 맞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심각한 부상을 남기지 않고 관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 이스라엘 군대가 테러 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도록
- 최소한의 가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또한 인도적 구호를 그들에게 베풀도록
- 복음이 아랍 민족에게 전해져 그들을 이슬람의 거짓으로부터 구원토록
- 지하드 사상의 배후에 있는 악령들이 묶여 분열되도록
-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선전이 진리로 파하여지도록
- 성령께서 군대 내 메시아닉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 하마스 및 그와 같은 조직들이 실각하도록
- 복음이 온 유대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성도들과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화해가 더 널리 증거되도록

주 1: 왜요? 왜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철수한 이래로, 하마스는 테러를 부추겨 왔습니다. 그들은 “점령”에 맞서 싸운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철수했는데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희 민족의 말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 왜 그냥 가서 가자의 적군을 쓸어버리지 않는 건가요? 쉽게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선전 단체들과 이스라엘 국민 및 정부가 무고한 이들의 사상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적 이유로 힘을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 2: 군사력과 복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화해와 군사력의 필요성 사이에서 때로 헷갈려 합니다.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경찰과 군대는, 목사와 전도자가 그러하듯 사역자입니다(롬 13:4).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나 사역에 반대하는 이가 있다고 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말씀하신 잘못된 복수의 영입니다(눅 9:55). 실상, 바로 그것이 지하드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반대할 때, 저희는 사랑과 축복으로 반응합니다. 저희는 아랍인들이 아랍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건 인종주의입니다. 저희는 무슬림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무력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죄자, 살인자, 테러리스트, 독재자들에게 무력을 씁니다. 그들의 종교나 인종적 배경과 무관하게 말이죠. 저희는 영적 목적을 위해 무력을 쓰지 않습니다. 무력을 쓰는 것은 법을 어길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다른 어떤 조직 범죄나 독재에 맞서듯 테러리스트들을 대합니다.

번역-고병현

Shaul Syunghyun Jo